

인천 경제산업 ISSUE&TREND

제23-16호 (2023.1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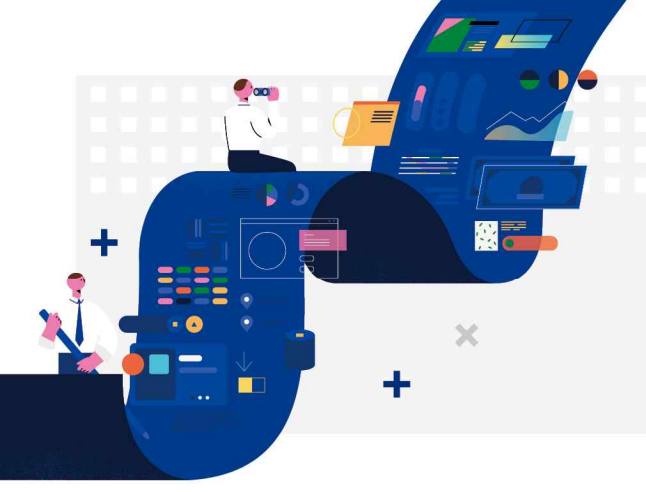
■ 이 슈

(창업) 인천 창업생태계 구축 현황 및
시사점

■ 주요 산업 현황

(제조) 바이오산업 시장 동향

■ 국내 정책동향



인천 경제산업 ISSUE&TREND

제23-16호 (2023.11.24)

Cotents

I. 이 슈

(창업) 인천 창업생태계 구축 현황 및 시사점 1

II. 주요 산업 현황

(제조) 바이오산업 시장 동향 7

(부록) 주요 산업 수출입지표 10

III. 국내 정책동향

(경제) 탄소중립 생활하면 월 최대 4만 원 제공하는 '어디로든 그린카드' 출시11

(지역) 행안부, '슬기로운 동네생활' 프로젝트 공모 시작 11

(경제) 11월 30일까지 대규모 할인행사 '2023 코리아세일페스타' 개최 12

(복지)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 12월부터 본격 시행 12

(복지)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대상 '재택의료센터' 100개로 확대 예정 13

(산업) 문체부, 콘텐츠 강국 도약을 위한 「영상산업 도약 전략」 발표 13

(산업) 개정 지능형로봇법 시행으로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한 신산업 허용 14

(교육) 한국의 지식재산금융을 소개하는 교육프로그램 시범 추진 14

연구진

최태림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민규량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상민경	인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 추진단 연구원
김효영	인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 추진단 연구원

창업 > 인천 창업생태계 구축 현황 및 시사점



#창업생태계 #창업기업 #창업가 #실태조사 #창업지원

- 창업은 △신규 고용 창출 △소득 수준 향상 △신시장 창출 △소비자 만족도 향상 등 다양한 방면에서 사회 구성원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시장에 역동성을 공급하여 궁극적으로 국가의 경제발전에 기여
 -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고, 산업간 융·복합이 활성화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 세제지원, 펀딩 등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
 - 세계 창업 강국으로 꼽히는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은 자국의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을 지원하고, 해외 유망 스타트업을 자국에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¹⁾
 - 또한 세계 200여 개 국가에서는 매년 11월 셋째 주에 ‘세계 기업가정신 주간(Global Entrepreneurship Week)’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창업문화를 확산하고 창업생태계 내의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²⁾
 - 우리나라 역시 지난 8월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등 경제성장 동력의 패러다임을 과거의 대기업 중심의 경제에서 벗어나 벤처·스타트업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 중
 - 국내에서는 창업진흥원을 통해 창업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수행하고 있으며, 예비 창업자와 창업기업이 정부의 지원사업을 부처별·지역별·분야별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K-STARTUP 홈페이지의 ‘2023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를 통해 정보를 제공

[표 1] 「스타트업 코리아」 추진 전략

구분	추진 과제
전략 1	①쉬운 해외창업 및 해외에서 성장 지원 ②글로벌 정책의 전략적 연계성 강화 ③외국인 창·취업 지원 ④국경과 공간을 초월한 창업환경 조성
전략 2	①벤처투자 민간전환 촉진 ②융복합형 창업지원 방식 도입 ③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체계 마련
전략 3	①스타트업 클러스터 조성 ②지역기반 경쟁력 갖춘 스타트업 양성 ③지역기반 벤처투자 활성화
전략 4	①스타트업-대기업 간 개방형 혁신 촉진 ②M&A 및 CVC 제도개선 등 ③새로운 규제혁신 제도 도입
전략 5	①도전적 창업 분위기 조성 교육 ②창업으로 연결되는 군복무 제도 및 대학·연구환경 ③재창업과 재도전이 용이한 환경 구축

* 자료 : 관계부처 합동(2023.08) 참고 및 재구성

- 1) ‘Startup America(미국, ‘11)’, ‘American Job Plan(미국, ‘21)’, ‘Global Entrepreneur Programme(영국, ‘04)’, ‘Future Fund Breakthrough(영국, ‘21)’, ‘스타트업육성 5개년 계획(일본, ‘22)’, ‘VentureEU(EU, ‘18)’, ‘The EXIST Business Start-up Grant(독일, ‘98)’, ‘대중창업 만인혁신(중국, ‘15)’ 등.
- 2) 우리나라 역시 2014년부터 GEW 행사를 개최하기 시작하여 올해 10주년을 맞았으며, 이번 행사는 11월 14일부터 19일까지 6일간 ‘지구를 살리는 기후테크,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기업가정신’이라는 주제로 △우수사례 성과공유회 △기업가정신 영화제 △토크콘서트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

- 인천시 역시 지역 내 창업을 촉진·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정책을 시행
- 인천시는 예비 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글로벌 스타트업 캠퍼스 △스타트업 파크 등을 운영
 -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는 2015년 설립된 인천시 창업지원기관으로, 예비 창업자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창업기업이 회의 및 시제품제작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을 제공
 - 또한 창업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저작권서비스센터를 설치하여, 창업기업의 저작권 사업화 및 소프트웨어 관리체계 컨설팅 등의 업무를 수행
 - 인천 글로벌 캠퍼스 복합문화센터 내에 ‘글로벌 스타트업 캠퍼스’를 2017년에 개소하여 △창업공간 제공 △현지화 챌린지 △프론티어 마케팅 △전용펀드 마련 등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
 - 2019년에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을 통해 인천 송도에 ‘스타트업 파크’를 유치하여 4차 산업혁명기반기술 스타트업의 실증·투자·해외진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 또한 최근에는 지역 내 창업생태계 고도화를 위해 △창업인프라 조성 △창업 인재 육성 △맞춤형 창업지원 △투자생태계 조성 등의 내용을 포함한 ‘2023년 창업정책 시행계획’을 수립·발표
 - 이 외에도 유망 스타트업 창업·발굴·성장 지원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창업 및 투자유치 지원 관련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인 ‘인천창업플랫폼’을 구축·운영하는 등 지역 내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

[표 2] ‘2023년 창업정책 시행계획’ 전략과제 및 추진 예산 현황

구분	사업 수	전체 예산(백만 원)				
		국비	시비	군구비	민간부담	총계
지역기반 인천형 창업인프라 조성	20	16,495	34,725	300	3,265	54,785
글로벌 혁신 창업인재 육성	6	10,775	100	-	246	11,121
수요기반 맞춤형 창업 성장 지원	21	7,449	3,328	280	1,112	12,169
스케일업 성장가속 글로벌 기업육성	12	-	18,671	-	153,050	171,721
유기적 통합 실행체계 구축	6	2,008	1,922	-	-	3,930
합계	65	36,727	58,746	580	157,673	253,7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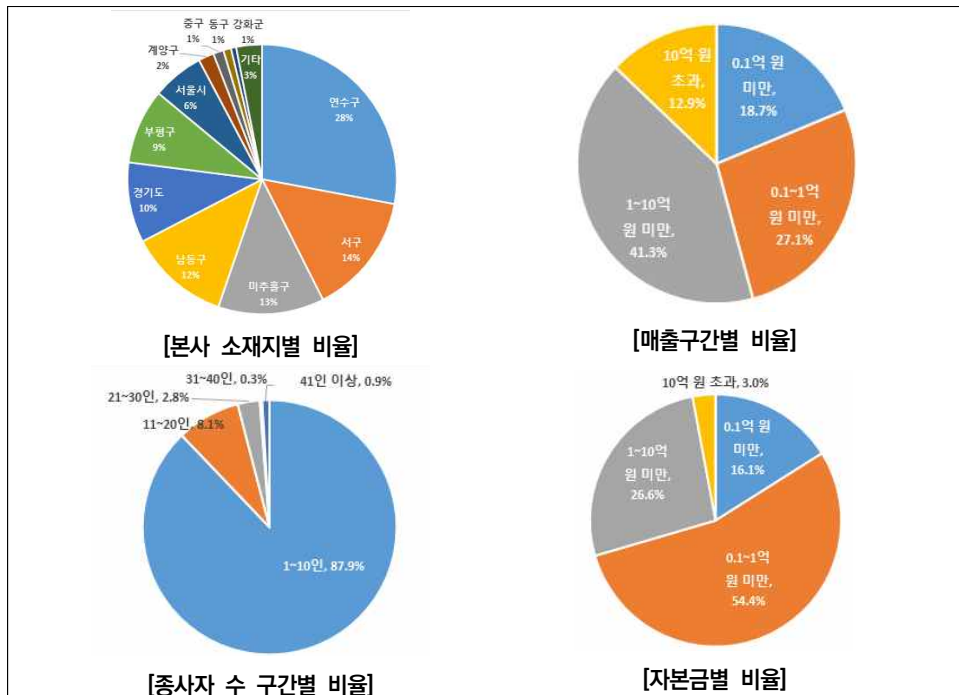
* 자료 : 인천광역시(2023.03) 참고 및 재구성

-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가 실시한 ‘2023년 인천 창업생태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천시에서는 △문화콘텐츠 △환경 △D.N.A △바이오 △반도체 △뷰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창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³⁾
- 2022년 말 기준 인천시에 자리한 7년 이내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천시 창업기업은 산업단지, 일반상업지역, 대학·연구기관에 주로 입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에서 추진하는 창업지원정책과 낮은 임대료가 창업기업의 입지 선정의 주요 요인인 것으로 조사
 - 인천 창업기업의 약 55.3%는 다수의 창업지원기관이 위치한 연수구, 서구, 미추홀구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3) 이하의 창업생태계 실태와 관련한 내용은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2023.08)의 자료를 기반으로 함. 동 실태조사는 인천 소재 13개 업종에 종사하는 322개 기업의 데이터에 기반하여 작성된 자료로, 인천 창업기업 전체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은 아님.

대체로 주식회사 또는 개인사업자 형태로 설립

- 응답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62,730만 원이며, 매출액 1억 원 미만의 소기업이 약 45.8%, 10억 원 초과 기업이 약 12.9%로 창업기업 간 매출액 차이가 큰 것으로 확인
 - 조사 대상기업의 총 종사자 수는 1,830명으로 10인 이하의 소규모 기업이 87.9%로 가장 많고, 본사 소재지 기준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연수구(580명), 서울시(235명), 경기도(209명), 서구(194명) 순
 - 응답기업의 평균 자본금 규모는 1억 4,882만 원으로 70% 이상이 1억 원 미만의 소규모 자본금을 기반으로 창업한 것으로 조사 되었으나, 창업기업 중 절반은 순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 한편 인천 창업기업은 주로 상표,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총 2,076건의 지식재산권을 출원하여 1,465건을 등록한 것으로 조사
- 인천시에서 창업한 창업가(창업기업 대표)는 주로 △남성(80.6%) △30대(35.2%) △대학졸업(48.2%) △연구·기술직(35.7%)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동창업보다는 단독창업(86.9%) 형태로 설립
- 창업가는 대체로 창업까지 약 1년 이내(76.0%)의 시간을 소요하였으며, 창업 전·후로 창업과 관련한 전문교육에 참여(40.0%)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
 - 다수의 창업가가 정부의 지원금이 아닌 자기자본을 이용해 기업을 설립했으며, 벤처캐피탈, 엑셀러레이터 및 엔젤투자자 등으로부터 1회 이상 투자를 유치한 경험이 있는 창업가는 12% 내외로 매우 소수인 것으로 확인
 - 창업의 애로사항과 관련해서는 자금조달(28.4%)에서 창업자들이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력확보(14.7%), 연구 공간 및 장비 등 인프라 확충(12.5%), 시제품 개발(11.3%) 순



* 자료 :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2023.08) 참고 및 재구성

[그림 1] 인천시 창업기업 현황

- 2018년 이후 인천시 내 창업기획자(Accelerator)를 통한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는 점차 증가하여 왔으며, 창업지원기관은 △기업 입주시설 △코워킹 스페이스 △메이커스페이스 △창업 교육 △멘토링 △사업화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기업을 지원
- 인천시의 창업기획자는 1990년 하나금융그룹에서 업무를 개시한 이래 2011년 연세대학교기술자주(대학), 2015년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공공)에서 창업기획 업무를 추진하며 점차 민간으로 확대되어 2021년 말 기준 인천시 내 총 13곳의 창업기획자가 설립⁴⁾
 - 13개 창업기획자의 운용 인력은 총 58명으로 △투자심사(29명) △전문인력(24명) △경영지원(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세대기술자주 및 에스아이디파트너스를 제외한 11곳은 4명 이하의 인력으로 운영
 - 2018년에서 2021년까지 13개 기관의 누적 투자건수는 101건, 투자금액은 168.1억으로, 투자건수와 금액은 매년 증가 추세
- 청년창업지원센터·여성창업지원센터·대학 등 창업을 지원하는 기관은 인천시 내 총 20곳으로, 20개 기관의 2023년 평균 예산은 약 17.3억 원 수준⁵⁾
 - 인천시 창업지원기관은 연수구, 미추홀구, 남동구 등 5개 지역구에 분포되어 있으며, 평균적으로 6.15명의 창업지원 인력을 보유
 - 인천 소재 창업지원기관은 주로 예비·초기창업자 및 기창업자, 혹은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검단메이커스페이스 Lab 창’의 경우 예비·초기 창업자(기업)가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만 창업 프로그램을 제공

[표 3] 인천시 소재 창업기획자의 투자 건수 및 금액

(건, 천만 원)

창업기획자 (설립연도)	2018		2019		2020		2021		총계		건당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하나금융티아이(1990)	0	0	0	0	1	3.6	0	0	1	3.6	3.6
연세대학교기술자주(2011)	0	0	5	95	6	126	16	365	27	586	21.7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2015)	5	17	5	70	8	68	10	89	28	245	8.7
에스아이디파트너스(2016)	0	0	7	15	2	4	0	0	9	19	2.1
아이스타트업랩(2018)	0	0	0	1	0	0	6	10	6	11	1.8
엔피프터파트너스(2018)	0	0	7	73	9	80	2	8	18	161	8.9
탭엔젤파트너스(2018)	0	0	0	0	2	49	5	522	7	571	81.5
나눔엔젤스(2018)	0	0	0	0	1	16	4	69	5	85	17
기타 5곳	0	0	0	0	0	0	0	0	0	0	-
합계	5	17	24	255	29	346	43	1,063	101	1,681	73.6

* 자료 :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2023.08) 참고 및 재구성

* 주1 : 동 자료는 2021년 말 기준으로 작성

2 : 투자 금액 자료 단위를 천만 원으로 변경하며 반올림으로 인해 연도별 합산 값과 총계 간의 일부 숫자 차이가 발생

4) 인천시 창업기획자 13곳 중 인천시에서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지원하기 시작한 2017년 이후 설립된 기관이 9곳에 달함.

5) 창업지원기관은 대체로 중앙정부 및 지자체 등으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음(인천광역시여성복지관 여성창업지원센터 제외).

[표 4] 인천시 창업지원기관 현황

지역	기관명	지원프로그램
연수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벤처센터	IP R&D, ESG 경영, 실증, 시험분석기관 연계, 입주기업 교류, 시제품 제작 등
	인천테크노파크 문화콘텐츠센터	콘텐츠 제작, 융합콘텐츠 제작 및 사업화 등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사관학교	창업 사업화 교육, 판로개척 지원, 제품개발 코칭 등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인천지역센터	입주기업 네트워크 구축, 창업 교육 및 컨설팅 등
	연세대학교 메이커스페이스 i7	멘토링, 시제품 제작, 사업계획서 작성, 마케팅 교육 등
	인천대학교 창업지원단(창업보육센터)	교육·멘토링·사업화 자금, 전문가 멘토링 및 네트워킹 등
	인천테크노파크 스타트업파크센터	투자유치 기회(행사), 콘텐츠 제작 및 배포, 실증 사업화 등
	인천 메이커스페이스	창업 교육, 시제품 제작, 기술 교육 등
	인천관광공사 관광기업지원센터	스타트업 발굴 공모 및 사업화,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등
미추홀구	인천항만공사	창업지원금, 멘토링서비스, 창업아이템 개발 등
	인천광역시여성복지관 여성창업지원센터	여성 창업자 대상 교육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소상공인 교육·컨설팅·폐업, 창업 크라우드 펀딩 등
	인하공업전문대학 창업지원센터	창업 교육, 경진대회 개최, 창업캠프 운영 등
남동구	인하대학교	투자 피칭 및 컨설팅, 창업 멘토링·교육, 기업진단, 인재 매칭 등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창업 교육 및 네트워킹, 예비·초기창업자 창업 등
	인천중장년기술창업센터	창업 교육, 온라인마케팅, 지적재산권 출원, 멘토링 등
서구	(주)미래서비스 인천창업통합지원센터	창업 교육, 전문가 자문, 경영 기술 자문 등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 창업자 교육 및 상담, 창업 기반 구축비 등
부평구	검단메이커스Lab 창	시제품 제작 교육 등
	한국폴리텍Ⅱ 대학 창업보육센터	기업 입주 및 장비 대여, 기술 멘토링, 사업화 등

* 자료 :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2023.08) 참고 및 재구성

- 인천시 창업기업은 인천시가 지원한 창업 프로그램에 대해 대체로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창업지원 관련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역시 높은 편
 - 설문 응답 기업이 참여한 창업 프로그램은 △자금지원(120건, 534.9억 원) △R&D 지원(116건, 231.8억 원) △사업화 지원(115건, 128.7억 원) △국내외 마케팅 및 판로 확보 지원(107건, 12.8억 원) 등
 - 창업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의 전반적인 만족도(5점 척도)는 ①사업화 지원 및 시설·공간 지원(각 4.1) ②창업 교육(4.0) ③자금지원(4.0) ④멘토링·컨설팅(3.9) ⑤창업행사·네트워크(3.8) ⑥R&D 지원 및 국내외 마케팅·판로확보 지원(각 3.6) 순
 - 인천광역시의 창업지원 행정서비스에 대한 평균 만족도 역시 7점 만점에 5.0점으로, 창업기업의 약 82.0%가 행정서비스에 대해 보통(4점) 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낸 것으로 조사
- 창업생태계 관련 연구기관인 StartupBlink에 따르면 인천지역의 창업생태계 환경은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혁신 창업생태계가 구축된 지역들과는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⁶⁾ 창업기업의 정책 수요에

6) StartupBlink(2023.05)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뉴욕은 창업생태계 점수가 각각 약 546점, 223점으로 전세계 창업생태계 순위에서 부동의 1위,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런던(127점) △로스앤젤레스(117점) △보스톤(103점) △베이징(99점) △상하이(67점) △방갈로르(64점) △파리(57점) △텔아비브 순. 한편 국내에서는 서울시가 창업생태계 점수 31점으로 글로벌 순위 24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반해 인천은 0.78점 수준으로 지난 2022년 대비 388위 상승한 406위를 기록.

기반한 지원책과 기업의 정착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인천은 △스타트업 파크 △K-바이오 랩허브 △뉴욕주립대, 유타대학 등 해외 우수 대학을 포함한 글로벌 캠퍼스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인천국제공항 △인천항만 등 기업의 창업과 성장, 해외진출에 유리한 인프라를 보유
- 다만 설문 응답 창업기업 중 인천에 위치한 본사, 연구소, 공장 등의 시설을 타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는 기업 역시 31.7%로, 지역 내 혁신역량의 유출을 막기 위한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 인천 이외 지역으로의 시설 이전을 고려하는 이유로는 △면적 확대(25.0%) △타지역 제도의 이점(21.5%) △산업인프라 부족(16.3%) △교통 및 주차불편(12.0%)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확인
- 잠재력을 갖춘 지역의 창업생태계를 더욱 활성화·고도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창업기업의 수요에 맞춘 적절한 지원책을 발굴하고, 창업기업의 인천 정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
 - 설문에 따르면 인천 창업기업에 가장 필요한 지원은 △투자 연계(302점) △창업 관련 정보 제공(255점) △창업 공간 지원(253점) △시제품 제작 지원(199점) 등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기업의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책 마련이 요구
 - 특히 창업 공간의 경우 인천시의 창업지원기관에서 제공하는 공간이 대체로 소규모기업에 따라 창업기업이 타지역으로의 이주를 고려하는 요인이 되는 만큼, 창업기업의 충분한 기업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중·대규모 공간을 확보하여 지원하는 것이 중요
- 또한 창업지원 프로그램 및 정착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와 관련한 실태조사의 주기적 진행을 통해 정책의 개선 및 고도화를 추진할 필요
 -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고 추가적인 정책 수요를 발굴하는 실태조사를 진행함으로써 지역 내 창업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자료 :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2023.08) 참고 및 재구성

* 주 : 동 설문조사 결과는 1순위 3점, 2순위 2점, 3순위 1점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합산 점수로 산출

〔그림 2〕 창업기업 정책지원 수요

7)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2023.08)에 따르면 인천지역 창업지원기관이 제공하는 기업 입주시설의 경우 총 414개 공간 중 약 42.3%가 수용인원 2인 이하의 소형 공간이고, 3~9인 규모의 중형공간이 52.4%로 사업 초기에는 유용하나 성장기업의 기반이 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제조 > 바이오산업 시장 동향



#화장품 #기타 화장품 #의약품

- 2023년 10월 기준 국내 화장품 부문 수출은 전년동월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바이오헬스 부문의 수출액은 수개월 연속 전년동월비 감소를 기록⁸⁾
 - 화장품 부문은 주요 수출국이었던 중국의 수출실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출국 다변화를 통해 수출액이 전년동기대비 약 11.0% 증가
 - 화장품 부문은 미국, 일본 등의 주요 수출대상국 이외에도 EU, 인도네시아, 중동 등 신흥시장에서의 수요가 높아지며 5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
 - 바이오헬스 부문은 일본, EU 등의 의약품 수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인한 진단키트 수요 급감과 더불어 주요 글로벌 기업 간 경쟁 심화로 인한 의약품 수출단가 하락으로 전년동월비 감소
 - 바이오헬스 부문의 10월 수출액은 전년동월대비 약 1.6% 감소한 10억 4,300만 달러, 의약품은 전년동월대비 약 1.7% 감소한 6억 2,700달러 수준으로, 16개월 연속 전년동기비 감소
 - 다만 바이오헬스 및 의약품의 수출액 감소율이 모두 1% 수준을 기록하여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존재

[표 1] 국내 바이오산업 수출 추이

(단위 : 백만\$, %)

구분	'23.03	'23.04	'23.05	'23.06	'23.07	'23.08	'23.09	'23.10
화장품 (증감률)	773 (9.2)	678 (-5.4)	769 (-8.1)	737 (12.3)	643 (4.7)	699 (12.2)	826 (11.8)	765 (11.0)
바이오헬스 (증감률)	1,198 (-35.2)	1,025 (-18.4)	1,089 (-27.3)	1,296 (-6.2)	962 (-17.6)	922 (-25.2)	1,124 (-15.0)	1,043 (-1.6)
의약품 (증감률)	731 (-37.2)	613 (-24.3)	611 (-37.7)	786 (-10.8)	561 (-22.7)	497 (-39.8)	672 (-20.9)	627 (-1.7)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월별 수출입동향(2023.11.01)' 참고 및 재구성

* 주1 : 최근 2개월 수치는 잠정치로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로 표기

2 : 각 자료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 (전국) 국내 바이오 관련 산업생산 경기는 화장품과 의약품의 흐름이 다르게 나타나는 가운데, 수출은 부문에 관계없이 전월대비 감소
 - (생산지수) 2023년 9월 국내 화장품 관련 생산지수는 80 수준에서 약보합세를 보이는 가운데, 의약품

8) 산업통상자원부, '월별 수출입동향(2023.11.01)'.

생산은 증감을 반복하며 개선되는 추세

- 2023년 9월 화장품 관련 전국 생산지수는 전월대비 0.7%, 전년동월대비 0.8% 증가한 87.1로, 지난 4월 이후 80 후반대에서 안정세를 유지
- 2023년 9월 의약품 생산지수는 전월대비 6.2% 감소 전년동월대비 0.6% 증가한 127.6으로, 의약품 생산 경기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
- (품목별 수출액) 2023년 10월 바이오산업은 품목과 관계없이 전월대비 저조한 수출실적을 기록
 - 화장품 수출액은 전년동월대비 11.0% 증가하였으나 전월대비로는 7.2% 감소하며 수출액 상승세가 주춤하였으며, 기타 화장품 수출액은 전월 및 전년동월 대비 각각 41.3%, 27.0% 감소하며 보합세
 - 의약품 수출액은 전월대비 6.7%, 전년동월대비 1.8% 감소하며 무역규모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으나, 감소폭은 둔화

○ (인천) 인천시의 바이오산업 생산지수는 모두 100 이상으로 생산경기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상황이나, 수출실적은 전국과 유사하게 감소하는 추세

- (생산지수) 2023년 9월 기준 화장품 관련 생산지수는 전년동월대비 5.6% 감소한 102.9, 의약품 생산지수는 전년동월대비 21.2% 증가한 159.8을 기록
- (품목별 수출액) 2023년 10월 인천지역 화장품 및 기타 화장품 수출액은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의약품의 경우 3개월 만에 전년동월비 증가로 전환
 - 화장품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5.2%, 전월대비 10.6% 감소하여 지난 3월부터 감소세가 지속 중이며, 기타 화장품은 전년동월대비 54.0%, 전월대비 23.5% 감소하는 등 여전히 두 자릿수의 등락을 유지
 - 의약품 수출액은 전년동월대비 21.6% 증가하며 3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했으나, 전월대비로는 6.1% 감소하며 수출액 감소세가 지속

[표 2] 국내 바이오 관련 산업생산지수 및 증감

지역	항목	'23.06	'23.07	'23.08 (p)	'23.09 (p)	'22.09	전월비 (%)	전년 동월비 (%)
전국	화학물질 등 제조업	86.2	86.9	86.5	87.1	86.3	0.7	0.8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77.4	74.0	74.4	74.8	80.4	0.5	-5.6
	의약품 제조업	128.0	136.0	136.1	127.6	127.0	-6.2	0.6
인천	화학물질 등 제조업	104.7	103.0	102.5	102.9	109.0	0.4	-5.6
	의약품 제조업	139.5	185.2	229.5	159.8	146.6	-30.4	21.2

*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시도/산업별 광공업생산지수(2020=100)' 참고 및 재구성

* 주1 : 산업생산지수 파악에 활용한 항목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반으로 구분하였으며,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C20)' 및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C204)',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C21)'의 자료를 이용함. 인천지역 자료는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에 해당하는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상위 항목을 이용

2 : 생산지수는 2020년을 기준으로 하는 원지수를 이용하였으며, 최근 2개월 수치는 잠정치로 추후 변동 가능



[화장품(MT12273)]



[기타 화장품(MT12279)]



[의약품(MT12262)]

* 자료 : K-stat 무역통계 '국내 품목 수출입 통계' 자료 참고 및 재구성

* 주 : 수출 금액은 1,000\$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그래프 좌측은 전국 기준, 우측을 인천 기준으로 작성

[그림 1] 바이오 품목별 수출 동향(2023.10)

[부록] 주요 산업 수출입지표(2023.10 잠정)

(단위 : 십만\$, %)

	전국					인천				
	수입		수출		수지	수입		수출		수지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반도체	111,079	-10.0	156,104	-5.2	45,025	16,566	10.8	19,896	-3.1	3,331
자동차	16,839	-9.7	74,456	10.5	57,617	1,250	-25.8	7,814	8.4	6,564
기계장비	46,731	-5.6	60,781	16.6	14,050	4,552	81.6	4,196	-5.2	-356
바이오-의약	7,757	-24.8	4,934	6.6	-2,823	892	30.8	3,254	21.9	2,363
바이오-화장품	1,787	10.1	7,370	9.3	5,584	28	32.1	1,604	-4.0	1,575

* 자료 : K-stat 무역통계 '품목별, 지역별 수출입 통계' 참고 및 재구성

* 주1 : 각 산업의 통계 원자료 참고 시 품목명은 순서대로 △전자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성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HS85)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 부속품(HS87) △원자로·보일러·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HS84) △의료용품(HS30) △정유와 레지노이드, 조제향료와 화장품, 화장용품(HS33) 등

2 : 각 지표의 증감은 전년동월대비 비율로 표기

경제 > 탄소중립 생활하면 월 최대 4만 원 제공하는 '어디로든 그린카드' 출시 +

#환경부

- 11월 7일 탄소중립 생활 실천과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환경부와 9개 금융기업 및 기관이 손잡고 '어디로든 그린카드'를 출시
 - '어디로든 그린카드'란 탄소중립 소비 시 금융권 ESG 협업을 통해 카드 할인·적립 등 소비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대국민 서비스인 '그린카드'의 2023년 리뉴얼 버전으로 친환경 교통 및 소비를 중심으로 탄소중립 생활양식에 맞춘 혜택을 월 최대 4만 원까지 제공
 - 전기차·수소차 충전 시 전월 실적에 따라 충전금액의 20~40%를, 쏘카·카카오T·바이크·따릉이 등 공유 모빌리티를 이용하거나 버스·지하철·고속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시 이용금액의 10%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에코머니로 지급
 - 또한 커피매장 이용 시의 10% 에코머니 적립 혜택은 스타벅스·폴바셋·이디야 등 탄소중립포인트 협업 커피전문점을 이용할 경우로 한정하고, 친환경제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월 혜택한도의 제한 없이 구매가의 5~25%를 에코머니로 적립 가능
 - 동 카드는 IBK기업은행,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경남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우체국, 제주은행 등 해당 은행 및 카드사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해 발급 가능

지역 > 행안부, '슬기로운 동네생활' 프로젝트 공모 시작 +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가 10월 30일(월)부터 12월 1일(금)까지 전국의 광역·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슬기로운 동네생활' 프로젝트 공모를 시작
 - 슬기로운 동네생활'은 행안부와 '당근'이 최초로 추진하는 민관 협업 프로젝트로, 지자체가 지역밀착 단위인 '동네'에서부터 소비·교육·여가 등을 충분히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지원하여 지역의 자생적 경제활력 제고를 유도하는 사업
 - 이번 공모는 지방비 포함 총 50억 원 규모로 개소당 사업비는 사업계획서 및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되며, 심사를 통해 12월 중순 최종 지자체를 확정된 이후 12월 말부터 지자체의 사업추진을 지원할 계획
 - 공모 심사에서는 △사업의 체계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역량·의지 △효과성 및 지속가능성을 기준으로 선정해 각 지역의 부합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할 예정

#산업통상자원부

- 역대 최대 규모인 2,500여 개 기업이 참여한 '2023 코리아세일페스타'가 11월 11일부터 20일간 개최
- 금번 코리아세일페스타는 대형마트·백화점·가전·자동차·영화관·편의점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적극 참여함에 따라 국민이 물가안정을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부문	주요 내용
대형마트	(이마트) 제철 신선식품·가공 인기브랜드 최대 50%, 김장대전, 겨울시즌상품 할인 등 (홈플러스) 신선식품 최대 50%, 인기 먹거리/생필품 1+1, 김장·수산대전 등 (롯데마트) 식품·생활용품 한정수량 최대 50%, 인기 완구 최대 30% 할인 등
백화점	(롯데·신세계·현대) 각 그룹사 쇼핑할인행사, 가전·가구·패션 할인, 겨울 정기세일 등
편의점	(CU·GS25·이마트24·CSPACE24) 주요 상품 N+N 행사, 상품 결합할인 등 (세븐일레븐) 와인, 도시락, 호빵, 세븐카페 카드사 연계 20~50% 할인
면세점	(롯데·신라·신세계·현대) 온라인몰 적립금 지급, 오프라인 구매금액별 할인 등
자동차	(현대·기아) 전기차 및 주요 모델 차종 한정 할인, 전기차 행사기간 중 추가할인 등 (KG모빌리티) 행사 기간 중 티볼라·렉스턴 등 차량구매 시 현금성 포인트 확대 지급 (르노삼성·한국GM) XM3, SM6, 트래버스 등 주요 차종 할인
가전	(삼성) 주요 16개 품목 할인, 다품목 구매 시 최대 580만 포인트 제공 등 (LG) 23개 품목 중 2개 이상 구매 시 최대 460만 캐시백, 일부 품목 행사전용 모델 운영 등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가 자립준비청년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11월 13일부터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의 신청 접수를 개시
-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은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이 의료급여 2종과 유사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립준비청년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이번에 신설
 - 동 사업의 지원 대상은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를 받다가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으로, 대상자가 건강보험 직장·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일 경우에 한해 지원
 - 사업의 대상자가 된 자립준비청년이 입원·외래 진료를 받거나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 의료비 지원 횟수·금액의 제한 없이 일반적인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4%만 부담하도록 본인일부부담금의 비율을 조정
 - 본인부담금 지원은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다음 날부터 시작되어 보호종료일로부터 60개월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 종료되며, 신청자별 지원 개시·종료일은 별도 통보 예정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료진과 사회복지사가 팀을 구성해 매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댁으로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해주는 사업으로, 2022년 12월 1차 시범사업을 시작해 현재 28개소가 운영 중
 - 복지부는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에 따라 2027년 동 센터를 전체 시군구에 설치한다는 계획하에, 내년 2차 시범사업에는 100개소로 확충하고 시범사업 대상도 장기요양 5등급·인지지원 등급까지 확대할 계획
 - 2차 시범사업 공모기간은 11월 15일(수)부터 12월 8일(금)까지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로 팀을 구성해 의사 월 1회·간호사 월 2회의 가정 방문과 사회복지사를 통한 돌봄서비스 연계로 지속적인 환자 관리를 수행할 능력을 보유해야 할 필요
 - 지자체는 지역 내 참여희망 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진행한 수 12월 8일(금)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관련한 상세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가 콘텐츠 산업의 국가전략산업 육성과 2027년 4대 콘텐츠 강국 도약을 목표로 하는 「영상산업 도약 전략」을 발표
 - 금번 전략은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콘텐츠 시장 지배력이 커지고, 지식재산(IP)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 대응해 국내 영상콘텐츠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
 - 동 전략은 △영상산업 활력 제고 △IP 협상력 제고를 위한 총력 지원 △영상창작자 권리 강화 등 3가지를 주요 골자로 계획
 - '24-'28년간 총 1조 원 규모의 민관합동 'K-콘텐츠 전략펀드'를 조성해 길러콘텐츠·IP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콘텐츠 기획·개발·수출 단계에서도 정책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하여 영상산업의 활력을 제고
 - 경쟁력·완성도를 갖춘 IP의 창출·활용할 수 있도록 IP 특성에 맞춘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표준계약서 등을 이용한 제작사의 IP 공동보유를 통해 업계 간 상생가능 모델을 확산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조성
 - 창작자, 제작사, 플랫폼 등이 참여하는 상생협의체 운영으로 영상물 창작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방안을 마련하고, 콘텐츠의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부처·민간 협력 및 국제공조를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 지난 5월 16일 개정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하 ‘지능형로봇법’)」이 11월 17일(금)부터 시행됨에 따라 실외이동로봇을 활용한 배달·순찰 등의 신(新)사업이 허용
 - 법령에 따라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은 보행자의 지위를 부여받아 보도 통행이 허용되며, 보도에서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려는 자는 보험(공제) 가입 의무가 부과
 - 지능형로봇법에서 규정한 인증 대상은 질량 500kg 이하, 속도 15km/h의 실외이동로봇으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부가 지정한 운행안전인증기관에서 △동적 안정성 △운행구역 준수 △속도 제어 △장애물 감지 △횡단보도 통행 등을 포함한 16종의 항목에서 로봇의 안전성을 검증받을 필요
 - 산업부는 개정 지능형로봇법이 시행되는 11월 17일(금)부터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기관 지정 신청을 접수받아 11월 내에 인증기관을 신규 지정할 예정이며, 한국로봇산업협회를 손해보장사업 실시기관으로 지정해 실외이동로봇 운영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상품 출시를 지원할 계획
 - 한편 경찰청은 지난 4월 18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실외이동로봇을 운용하는 사람에게 로봇의 정확한 조작 및 안전한 운용의 의무를 부과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실외이동로봇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경우 운용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할 예정

#국가지식재산위원회

-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공동으로 한국의 지식재산금융*을 WIPO 회원국에 소개하는 ‘지식재산(IP) 금융 마스터 클래스’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교육생을 모집
 - * ‘지식재산금융’이란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과 같은 지식재산권을 이용해 자금을 융통하는 일련의 금융활동으로, 대표적인 상품은 담보대출, 보증, 투자 등
 - 동 교육과정은 지난 2월 방한한 WIPO 사무총장이 개발도상국의 롤 모델이 되는 한국의 지식재산정책에 대해 회원국에 소개하는 교육프로그램의 진행을 제안한데 따라, 한국의 IP 금융 시스템을 WIPO를 통해 해외에 전파하는 시범사업으로 추진
 - 회원국의 전문가, 공무원,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금번 교육은 12월 1일(금)까지 WIPO의 참가 등록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선수과정 이수 신청자 중 100명의 수강생을 선발하여 교육이 진행
 - △IP 금융 기초 △산업재산권 IP 금융 △콘텐츠 IP 금융 △IP 금융 이슈 등 4개 분야의 15개 주제로 구성된 본 교육은 12월 11일(월)에서 12월 14일(목) 오전 7시~11시 사이에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교육수료자에게는 WIPO의 증명서가 발급될 예정

참고 자료

- 관계부처 합동, 「글로벌 창업대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 대책」, 2023.08.30.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의 창업생태계 발전전략과 정책 시사점」, 2023.12.28.
- KDB 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 「주요국의 스타트업(Stratup) 지원방식과 시사점」, 2019.04.
- 중소벤처기업부, “2023 세계 기업가정신 주간 행사, 성황리에 개막”, 2023.11.14.
- 인천광역시,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유망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에 자금 지원!”, 2015.10.14.
- 인천광역시, “청년창업, 「글로벌 스타트업 캠퍼스」 호 닷을 올리다.”, 2017.04.05.
- 인천광역시, “인천창조 혁신센터 보육기업 도전! K-스타트업 2017”, 2017.07.24.
- 인천광역시, “글로벌 비즈니스의 허브 글로벌 스타트업 캠퍼스 개소”, 2017.09.21.
- 인천광역시, “인천시, 중기부 스타트업파크 공모사업 당당히 1위 선정”, 2019.07.11.
- 인천광역시, “인천시, 유망스타트업 발벗고 지원 나선다”, 2020.04.28.
- 인천광역시, “인천시, 창업생태계 클러스터 구축 ‘주력’”, 2021.03.04.
- 인천광역시, “인천시, 창업생태계 활성화 나선다.”, 2021.09.29.
- 인천광역시, “인천시, 창업생태계 활성화 방안 마련”, 2021.10.26.
- 인천광역시, 「2023년 창업정책 시행계획」, 2023.03.
- 인천광역시, “창업 정보부터 투자유치 지원까지…인천시, 온라인 플랫폼 선보여”, 2023.04.25.
-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2023년 인천 창업생태계 실태조사」, 2023.08.31.
- StartupBlink, 「Global Startup Ecosystem Index 2023」, 2023.05.30.
- 산업통상자원부, “월별 수출입 동향(매월호)”.
국가통계포털(KOSIS), ‘광업제조업 동향조사’.
- K-stat 무역통계, ‘국내 품목별 수출입 통계’ 및 ‘국내 지역별 수출입 통계’.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어디로든 그린카드’로 전기·수소차 충전하면 최대 40% 캐시백”, 환경부, 2023.11.07.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50억 규모 ‘슬기로운 동네생활’ 프로젝트로 지역경제 활력 높인다”, 행정안전부, 2023.11.07.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역대 최대 규모 ‘코리아세일페스타’ 개막…그랜저 400만원 ↓·대형마트 반값”, 산업통상자원부, 2023.11.10.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12월부터 자립준비청년의 의료비 본인부담 14%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 2023.11.1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거동불편한 어르신 찾아가는 ‘재택의료센터’ 28개→100개로 확대”, 보건복지부, 2023.11.14.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영상콘텐츠 산업 5년 내 40조 규모로 육성…수출 18억 달러 달성”, 문화체육관광부, 2023.11.14.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실외이동로봇’ 보도 통행 가능해진다…배달·순찰 로봇 허용”, 산업통상자원부, 2023.11.16.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지식재산 금융 마스터 클래스’ 교육 진행…18일부터 신청”,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3.11.17.

인천 경제산업 ISSUE&TREND

제23-16호(2023.11.24)

발 행 처 인천연구원
발 행 일 2023년 11월 24일
주 소 (22711)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98
전 화 032-260-2600
홈페이지 www.ii.re.kr

본 리포트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으로 연구원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
본 리포트의 저작권은 인천연구원에 귀속되며, 원고의 무단전재, 복제, 배포 등
저작권 전반에 관한 침해 행위를 금합니다.